

제목 Theme: 큰 잔치 Great Banquet

누가복음 Luke 14:15-24 절

15.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When one of those who were reclining at the table with Him heard this, he said to Him, "Blessed is everyone who will eat bread in the kingdom of God!"**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But He said to him, "A man was giving a big dinner, and he invited many;**

17.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and at the dinner hour he sent his slave to say to those who had been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ready now.'**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But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s. The first one said to him, 'I have bought a piece of land and I need to go out and look at it; please consider me excused.'**

19.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Another one said, 'I have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am going to try them out; please consider me excused.'**

20.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Another one said, 'I have married a wife, and for that reason I cannot come.'**

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And the slave came back and reported this to his master. Then the head of the household became angry and said to his slave, 'Go out at once into the streets and lanes of the city and bring in here the poor and crippled and blind and lame.'**

22.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And the slave said, 'Master, what you commanded has been done, and still there is room.'**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And the master said to the slave, 'Go out into the highways and along the hedges, and compel them to come in, so that my house may be filled.'**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For I tell you, none of those men who were invited shall taste of my dinner.'"**

본문의 발단은 식사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지위가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 보고 있었었습니다 **(1 절)**.

그 때 예수님 앞에 고창병이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창병(Dropsy)은 음식을 잘 먹지 못해 즉 영양실조로 인하여 체질이 마르고 배가 불러오는 그래서 힘이 없는 상태의 병으로 수종병이라고도 부르는 병입니다. 잔칫집에 영양실조로 인하여 고창병이 걸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부유한 사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아 보아야 할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창병이 든 사람이 초대한 바리새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병든 자를 예수님의 눈에 띄도록 했을 수 있습니다(2 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시험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는가 아닌가 대답해보라”(3 절) 고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그들이 잠잠했다고 했습니다(4 절). 대답이 없는 그들은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양심으로나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 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 놓고 말하는 그들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직역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기 기준으로 외식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법 위에 두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고창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회복시켜 보내셨습니다(4 절)

예수님께서서는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서로 상좌에 앉으려는 그들을 보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상좌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면 그 잔치의 주인이 와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러 상좌에 앉게 하는 일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잔치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과 자세가 주인에게는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10 절).

이어서 잔치에 대하여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12 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초대하여 대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유한 사람들은 값아 줄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은 14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값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할 때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야 할 잔치를 앞으로 있을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잔치로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잔칫집에서 구원 받아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큰 잔치로 이야기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초청하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시며 깨닫게 하는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을 그 잔치에 초대함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고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에게 큰 잔치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유대인 중에’라는 말로 안식일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큰 잔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십니다(16 절). 본문에 “어떤 사람이”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리고 “큰 잔치”는 천국에서 열리는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들과 그들을 초대 한 잔치에서 누리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선택 받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늘 나라보다 육신적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초청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했습니다(16 절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 그들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 이유로 큰 잔치에 초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18 절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모두 초대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이곳에 있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직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18 절에 “나는 밭을 샀으므로 부득이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라는 경제적 이유와 19 절에 “나는 소 다섯 마리를 샀으므로 그 소들을 시험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라는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20 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라는 세속적 쾌락 또는 여유 등의 핑계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즉 율법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하여 세속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과 현대 교회 그리고 교인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초대받았으나 거절한 그들에 대하여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21 절 “집 주인이 노하여”). 이것은 그들이 밭을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종들’은 소명을 받은 지금의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까운 지역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빨리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2 절에 “명령대로 하였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23 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언어도 생활도 문화도 다른 이웃 나라에 나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의 현장을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복음 사역으로 천국에서의 큰 잔치는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24 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라고 하신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 장 20 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종의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큰 잔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16 절 “큰 잔치를 준비하고”)

1. 보낸 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3 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벧새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2.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3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3. 아버지 하나님을 마주보고 영원히 큰 잔치를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13 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둘째, 영생보다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자는 절대로 천국의 큰 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18 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19 절**, --- **20 절** 가지 못하겠노라”)

1. 발을 씻다는 것은 물질 때문에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 서 2:15 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2. 소 다섯 마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기 위하여 시간이 없다는 것은 현대 사람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1 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세상을 부르셨도다”)

3. 결혼을 한 것처럼 이 세상의 환락과 쾌락 등에 빠져 천국에 소홀한 사람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14 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셋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천국 큰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23 절** “내 집을 채우라”)

1. 구원을 이루는 긍휼은 반드시 복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40 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2. 예수님의 사역도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43 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3.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14 절** “열 둘을 제자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나게 하시니라”)